

보도 일시	2021. 10. 15.(금) 14:00	배포 일시	2021. 10. 15.(금) 09:00
담당 부서 <전수식>	체육국 체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원경덕 (044-203-3124)

## 2021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및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 김자인 선수 등 체육발전유공자 37명, 이지석 선수 등 대한민국체육상 9명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제59회 ‘체육의 날\*’인 10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1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과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하고, 체육의 날 행사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 문체부는 1963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올해 포상 대상자는 체육발전유공 훈포장 37명(청룡장 8명, 맹호장 10명, 거상장 9명, 백마장 4명, 기린장 3명, 체육포장 3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46명이다.

‘체육발전유공 훈포장’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각 훈포장 포상 대상자의 훈격은 정부포상 신청을 토대로 수공 기간, 추천 제한 사항,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정해진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 청룡장에 대한산악연맹 김자인 선수와 충청북도 장애인 체육회 민병언 선수 등 8명, ▲ 맹호장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김태균

선수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김병우 생활체육위원장 등 10명, ▲ 거상장애 강원도청 펜싱팀 정길옥 선수와 대한장애인론볼연맹 이성진 감독 등 9명, ▲ 백마장애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이희원 선수와 전(前)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농구팀 고(故) 한사현 감독 등 4명, ▲ 기린장애 대한민국댄스 스포츠연맹 김도현 선수 등 3명, ▲ 체육포장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오혁주 선수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경식 코치 등 3명이 선정되어 총 37명이 훈포장을 받는다.

1963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9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 우수선수와 지도자, 체육진흥 및 연구 등 총 9개 분야(대통령상 7개 부문, 문체부 장관상 1개 부문, 장관감사장 1개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를 살펴보면 ▲ 연구상에는 경희대학교 송종국 교수, ▲ 지도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육상부 심재용 감독, ▲ 공로상에는 대한하키협회 신정희 부회장, ▲ 진흥상에는 대구광역시 체육회 박영기 회장, ▲ 극복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사격팀 이지석 선수, ▲ 특수체육상에는 주몽학교 이해정 교사, ▲ 심판상에는 경북대학교 한윤수 교수, ▲ 체육인의 장한 아버지 상에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류성현 선수의 아버지 류정훈 씨와 다이빙 종목의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의 어머니 정영숙 씨가 선정됐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천만 원이, ‘체육인의 장한 아버지상’ 수상자에게는 감사패와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이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맘껏 누리는 스포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체육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 운동 백신으로 건강한 내일 만들자

한편, ‘체육의 날’을 기념해 ‘운동 백신으로 건강한 내일 만들어요’를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 ‘체육의 날’을 맞이해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을 선정하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행사, ▲ ‘국민체력 100’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국가대표 선수의 운동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운동 영상 시청 행사’,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에 참여한 후 인증서를 제출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체력측정 참여·인증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누리집(www.sports.or.kr)과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이브리핑(<http://ebrief.korea.kr>)을 통해 ‘2021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및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언론 브리핑(발표자: 유병채 체육국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2021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2.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  
 3. 제59회 체육의 날 포스터

담당 부서 <전수식>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원경덕 (044-203-3124)
<체육의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0)



# 붙임1

## 2021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대상자(37명)

### □ 포상 규모(37명)

구분	체육훈장						체육포장	합계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소계		
비장애인	4	9	7	3	3	26	2	28
장애인	4	1	2	1	-	8	1	9
합계	8	10	9	4	3	34	3	37

### □ 2021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부문별	성명	공적요지
체육훈장 청룡장 (8명)	김자인 (88년생)	<u>대한산악연맹 선수</u> 2004년부터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로서 최다 우승을 기록하고, 스포츠클라이밍을 국내에 널리 알려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함
	유옥열 (73년생)	<u>경희대학교 남자체조팀 지도자</u>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동매달 입상,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양학선 선수 금매달 지도 등 체조사상 첫 금매달 획득과 대한민국 체조 발전에 크게 기여함
	염혜수 (72년생)	<u>대한수중핀수영협회 지도자</u> 30여년간 지도자로서 기본 자질과 책임감, 봉사정신으로 핀수영 선수 육성과 신입 지도자 양성에 힘써 국민과 핀수영계의 사기 진작, 화합에 지대한 공을 세움
	이현영 (71년생)	<u>대한수중핀수영협회 지도자</u> 세계 핀수영선수권대회 13개국 중 종합 2위 등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지도자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육발전에 기여함
	김정길 (86년생)	<u>광주광역시청 탁구 선수</u>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로서 페럴림픽대회 및 아시안 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경기력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함
	최일상 (75년생)	<u>포스코케미칼 탁구 선수</u>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탁구 선수로 패럴림픽, 세계 선수권 등에 참가하여 뛰어난 경기력으로 장애인 탁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부문별	성명	공적요지
	민병언 (85년생)	<u>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수영 선수</u> 2010년, 2014년 아시안 패러게임, 2012년 런던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임
	이창호 (69년생)	<u>대구광역시 장애인탁구협회 선수</u>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대표선수로 패럴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였음
체육훈장 맹호장 (10명)	박경두 (84년생)	<u>해남군청 펜싱 지도자</u>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에페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선양 하였음
	김태균 (86년생)	<u>대한수중핀수영협회 선수</u> 학창시절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혼신의 훈련과 노력 끝에 세계신기록까지 달성하여 많은 핀수영 선수들에게 자긍심을 주었음
	김민재 (83년생)	<u>남녕고등학교 역도 선수</u> 20년간 대한민국 역도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를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여 국위선양함
	정섬근 (79년생)	<u>대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지도자</u> 1997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2011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세계선수권대회 등 다수의 국제대회 입상을 통하여 대한민국 쇼트트랙 발전에 크게 기여함
	김병희 (82년생)	<u>대한사격연맹 선수</u> 1996년부터 현재까지 사격선수로 활동하며 세계선수권대회 2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 국제대회 입상을 통하여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함
	고범석 (80년생)	<u>대한수중핀수영협회 지도자</u> 핀수영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장예슬 선수(제19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등을 비롯하여 많은 선수들을 지도 및 육성함
	故 김인 (43년생)	<u>前 한국기원 선수</u> 1960~70년대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바둑선수로 국내 프로선수제도 정착과 바둑행정 체계화, 기도문화 발전에 공헌 등 국내외 바둑저변 확대에 기여함
	故 오창석 (62년생)	<u>前 대한육상연맹 마라톤 지도자</u> 1995년부터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2020년 2월 7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직을 역임하며 대표선수 육성에 기여함

부문별	성명	공적요지
	이영희 (57년생)	<b>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b> 재활의학 및 스포츠의학 전문의로서 올림픽 등 국내외 스포츠 의료분야에서 활약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 공헌하는 등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함
	김병우 (67년생)	<b>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b> 휠체어육상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이며 은퇴후 30년간 현장에서 휠체어 종목별대회 창설, 생활, 전문체육 보급과 진흥 등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함
체육훈장 거상장 (9명)	정길옥 (80년생)	<b>강원도청 펜싱 선수</b>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여자 플러레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면서 올림픽, 세계펜싱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위선양함
	신진희 (89년생)	<b>대한수중핀수영협회 선수</b>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였으며, 청소년 신기록 2회와 한국 신기록 4회를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임
	손영기 (85년생)	<b>대전도시공사 펜싱 선수</b>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남자 플러레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면서 아시아경기대회 등 다수의 국제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선양하였음
	나윤경 (82년생)	<b>대한사격연맹 선수</b>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사격선수로 활동하며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1위 등 국제대회 입상을 통하여 대한민국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함
	김미란 (79년생)	<b>대한유도회 지도자</b> 유도 여자대표팀 지도자로서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지도력으로 2016 리우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유도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
	신종훈 (89년생)	<b>신종훈 복싱클럽 선수</b> 10년 가까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아시아경기대회 1위, 세계복싱선수권대회 2위,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1위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며 국위선양하였음
	故 이현조 (73년생)	<b>前 대한산악연맹 선수</b> 에베레스트(8,848m) 등정, 낭가파르바트(8,125m) 신루트 등정, 마칼루(8,463m) 등정 등으로 국위선양 및 산악등반 발전에 기여함
	이성진 (47년생)	<b>대한장애인론볼연맹 지도자</b>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세계론볼선수권대회 등에 지도자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떨쳤으며 장애인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박정웅 (68년생)	<b>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육상 감독</b> 육상종목 코치 및 감독으로 장애인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장애인육상의 발전에 공헌하였음

부문별	성명	공적요지
체육훈장 백마장 (4명)	이희원 (84년생)	<b>대한수중핀수영협회 선수</b> 제15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잠영 400m 1위, 잠영 800m 2위를 기록하는 등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핀수영 선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종목발전에 기여함
	성언화 (81년생)	<b>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선수</b> 2012년 아시아폼새선수권대회 개인 1위, 2016년 개인 2위, 단체 1위, 2014년 세계폼새선수권대회 개인 3위, 단체 1위 등으로 태권도 한국 종합 우승에 기여함
	박훈식 (64년생)	<b>대한유도회 지도자</b> 2015년, 2017년, 2019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유도 지도자로 참가하여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기여하고 유도 단체 임원 및 심판 활동으로 유도 발전에 기여함
	故 한사현 (68년생)	<b>前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팀 감독</b> 휠체어농구 선수, 감독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2020도쿄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체육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음
체육훈장 기린장 (3명)	김도현 (84년생)	<b>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선수</b> 2010년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 댄스스포츠종목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여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댄스스포츠의 자긍심 향상과 국위선양에 기여함
	박수묘 (87년생)	<b>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선수</b> 2010년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댄스스포츠종목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여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댄스스포츠의 자긍심 향상과 국위선양에 기여함
	조순례 (66년생)	<b>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지도자</b> 2005~2021년 국제심판 및 1998~2021년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며,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3인조 1위, 월드게임 에어로빅 댄스 1위 등 국위선양에 기여함
체육포장 (3명)	오혁주 (73년생)	<b>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선수</b> 제자들의 태권도 대학 진학 및 세계태권도폼새선수권대회 17세 이하 여자 단체전 1위, 세계태권도폼새선수권대회 개인전 2위 등 후진양성과 우수성적에 기여함
	조상효 (82년생)	<b>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선수</b> 2010년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 댄스스포츠종목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함
	김경식 (76년생)	<b>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지도자</b> 2019년 제5회 아시아장애인선수권대회 코치로 선발되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장애인 태권도 발전에 기여함

부문별	성명	공적요지
연구상	송종국 (59년생)	<u>경희대학교 교수</u> 우리나라 운동생리학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로서 체육학 학문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 특히 아동 청소년과 고령자들의 건강개선 연구, 태권도의 학문적 발전과 과학적 이론 정립, 각종 체육현장의 자문·평가자 활동 등을 통해 체육 발전에 공헌함
지도상	심재용 (59년생)	<u>광주광역시청 감독</u> 우사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도한 선수들이 한국신기록을 총 18회 수립하였으며 국제대회에서도 15회 이상 입상하는 등 우리나라 육상 발전에 헌신함
공로상	신정희 (55년생)	<u>대한하키협회 부회장</u> 1969년 선수활동을 시작하여 1981년 국제심판을 거쳐 현재 대한하키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선수육성과 저변확대, 우수한 국제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하키 발전에 크게 공헌함
진흥상	박영기 (54년생)	<u>대구광역시체육회 회장</u> 각종 생활체육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지역의 소외된 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가체육 발전 및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함
극복상	이지석 (74년생)	<u>광주광역시청 사격팀 선수</u>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패럴림픽을 비롯한 국제·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 하였고, 증증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함
특수체육상	이혜정 (64년생)	<u>주몽학교 교사</u> 1985년부터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에 큰 성과가 있었고, 보치아 국제 임원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함
심판상	한윤수 (73년생)	<u>경북대학교 교수</u> 18년 8개월의 경력과 남자체조 국제심판 1급(2001)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 심판으로서, 2012 런던올림픽, 2016리우올림픽, 2020도쿄올림픽 체조 심판활동 및 후진양성 등을 통해 한국체조 발전에 기여함



부문별	성명	공적요지
체육인의 장한 아버이상	류정훈 (82년생)	<u>기계체조 류성현 선수 부친</u>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온갖 헌신을 다하여 자녀를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키우는데 헌신함
	정영숙 (69년생)	<u>다이빙 김영남·영택·영호 선수 모친</u> 자녀3명을 다이빙 선수로 뒷바라지하며 두 형제를 국가대표 선수, 셋째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키우며 다이빙 발전에 기여함

